

家庭經濟에 있어서의 教育費支出

—大邱市 家口를 中心으로—

Educational Expenses in Household Economy

慶北大 師大 姜 善 子

Sun Ja, Kang

目 次

一. 序 說

1. 教育費의 問題性과 研究目的
2. 教育費의 定義
3. 本研究의 分析方法

二. 調査家口의 性格

1. 家口의 屬性
2. 家口主의 職業構成

三. 家口의 經濟狀態

1. 收入과 支出
2. 家計費와 教育費

3. 經濟生活 狀態

四. 家口의 教育費支出

1. 教育費支出과 子女數
2. 教育費支出의 經濟的事實
3. 各級學校의 教育費支出의 패턴
4. 職業階層과 教育費

五. 教育費支出과 家口主의 態度

1. 家口主의 表層的인 態度
2. 家口主의 深層的인 態度

六. 結 論

一. 序 說

1. 教育費의 問題性과 研究目的

教育의 重要性을 經濟學的으로 강조하는 여러 學徒도 있다. 알프레드 마아샬(Alfred Marshall)은 〈國民投資〉라 하여 教育의 重要性을 강조하는 그의 견해에서 “모든 資本中에서 가장 貴重한 자본은 인간에 投下된 자본”이라고 말하며 人力資源 開發의 重要性을 인식케 했으며, 아담 스미드(Adam Smith)는 그의 著《國富論》中 여러 곳에서 教育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특히 그의 〈固定資本〉의 개념 속에서 “才能의 習得에 있어서는 教育, 研究 또는 見習期間中 그 學習者를 扶養함으로써 항상 實質的인 비용을 要하게 되며, 그것은 말하자면 인간에 投下된 固定資本인 것이다. 그러한 才能은 개인의 資產인 동시에 그가 소속하고 있는 사회의 資產이기도 하다”는 것이다(註 1). 이들 學者의 지적을 말할 것도 없이, 教育이 個人, 家族 또는 國家社會의 발전 향상에 이바지하는 바가 자못 큰 것은 누구나 異論이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解放을 계기로 하여 각 가정에 있어서 父母들이 자녀 교육에 대하여 대단한 열성을 보여 왔으며 특히 근자에 이르러 이러한 傾向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現象은 就學人口의 격증(註 2), 後進國으로서는 특이할만큼 急激한 文盲者의 減少(註 3)와 높은 上級學校 진학율(註 4) 등이 이를 示唆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도 父母들의 높은 교육열이 결과적으로 人的資源의 質的向上을 초래케 했으며,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명확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육열은 이에 隨伴되는 여러가지 副作用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즉 大量的의 高等失業者群을 만들어 냈다든가, 교육을 받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신적 肉體的인 건강을 과도로 해친다든가, 또는 家庭經濟에 있어서 無理한 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을 加一層 악화시키는 등, 社會經濟的인 불안을 造成하였으며(註 5). 특히 근래에 있어서는 “家計簿에서 課外授業費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生活水準이 높다”는 新係數論이 나올 만큼, 국민학교 아동의 과외교육이 父兄들의 一流校에 대한 執念과 더불어 사회 문제로 클로уз드업되고 있는 것이다(註 6).

이처럼 여러가지로 韓國家庭의 教育熱은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는데, 其中的 하나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 문제인 것이다. 물론 막연하게나마 자녀의 교육비가 家庭生活의 健全한 營爲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나, 이것이 具體的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는 實態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 분야의 調查研究는 거의 未開拓으로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經濟企劃院이라든가 韓國銀行 등의 一般 家計調查 統計資料가 있긴 하지만, 그 속에 나오는 교육비라는 것은 단지 잡비 속의 小項目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私教育費의 內譯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筆者는 既存資料에 의존할 수가 없었으므로 부득이 調査票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現在時點에서 보는 事實發見(fact-finding)과 그 要因의 相互關聯을 보는 橫斷的 分析(cross sectional analysis)에 중점을 두는 探索的인 연구(pilot study)에 치중하게 되었다.

2. 教育費의 定義

본 研究가 기본적으로 교육비 지출을 다루고 있으므로 먼저 教育費의 용어를 規定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많은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教育費에 관해 定義가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定義가 不明瞭하거나 曖昧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惹起시키게 된다. 이는 “특히 專門家들의 무책임한 術語의 驅使 때문이며 또 그 술어를 개인적인 특수한 의미로 자유로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註 7).

교육비의 定義는 家計費支出의 중요한 비용인데, 이 용어의 해석과 내용이 사용하는 사

람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經濟企劃院의 경우는 이를 단순히 school-fee(授業料)로만 限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使用法은 教育費支出을 計定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教育費를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教育機關의 設立者가 教育을 실시하고 개인이 教育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經費의 總和라고 할 수 있다(註 8).

教育費는 다른 一般 國家事業에 지출하는 비용에 比하여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1) 高度의 公共性 (2) 非緊急性 (3) 間接 利益性 등이다.

그리고 교육비는 公教育費와 私教育費로 구분된다. 公教育費는 國家나 地方 公共團體가 教育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의 總和이다. 이 公教育費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그 收入源을 의존한다. 私教育費는 개인이 子女教育을 위하여 지출하는 일체의 經費(註 9) 또는 學校法人이 教育事業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私教育費는 다시 授業料, 期成會費 등과 같이 半強制的으로 지출을 해야하는 것과, 講習費, 特技指導費 등과 같이 純粹히 父兄에 의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經費(註 10)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이 論文에서 教育費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私教育費만을 가리키며 子女의 教育 때문에 가정에서 지출되는 諸費用의 總和이며 具體的인 교육비의 細目은 다음 16가지에 걸친 項目의 지출비이다.

- (1) 公納金, 期成會費 (2) 教科書代金 (3) 校服費 (4) 參考書代金
- (5) 修學旅行費 (6) 學校 寄附金 (7) 卒業費 (8) 通學費
- (9) 下宿, 寄宿, 自炊費 (10) 學級費 (11) 學用品代 (12) 學校 課外授業費
- (13) 教師 謝禮費 (14) 一般教養 圖書費 (15) 家庭教師, 講習費 (16) 特技 指導費

3. 本研究의 分析方法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大邱市 家口의 교육비 지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抽样을 행했으며 抽样은 集落抽出法(cluster sampling)에 따랐다.

즉 학교의 評價差와 地域的인 分布를 고려하여 大邱市內의 5個 國民학교, 사대부국, 壽昌, 中央, 復明, 新岩을 抽出하였다. 이 가운데서 師大附屬 國民學校는 特A級으로 指目되고 中央은 A級, B級은 復明國民學校, 壽昌國民學校는 A級과 B級の 中間, 新岩國民學校는 C級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註 11).

이들 각 國民학교에 學級수에 比例한 枚數의 調査票를 學級담임 교사의 수고를 끼쳐 그 學級兒童에 配付하도록 부탁하고 그 아동의 父母가 調査票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이를 담임교사가 회수하는 配票調査法을 사용했다. 따라서 本調査의 대상은 上記 5個 國民學校에 재학하는 子女의 가정의 父母와 그 가정에서 교육비 지출을 하는 모든 子女가 해당된다.

配付調査票는 570部이고 回收票數는 489部, 有用票數는 配付票數의 67%가 되는 384部이다. 調査票配付와 回收는 1967년 10月 15日부터 10月末 사이에 행해졌다. 調査票 項目中 金

額換算은 月平均을 원칙으로 하였다.

<註>

1. Frederick Harbison and Charles A. Myers 共著 ; Education. Man power and Economic Growth p.29
2. 大韓民國 文敎部(Ministry of Education) ; 文敎統計年報(Statistic Year Book of Education), 1966. p. 54
3. 大韓敎育聯合會 ; 韓國敎育年鑑, 1966. 1967年, p. 236
4. 合同通信社 ; 合同年鑑, 1966年, p.313
5. 朝鮮日報 ; 課外工夫批判, 1967. 10. 31
週刊韓國 ; 課外授業의 實態, 1967. 11. 5
6. 文敎部長官, 文鴻柱 ; 朝鮮日報 論評, 1967. 10. 29
7. 白賢基 著 ; 敎育政策 研究, 1966. 敎育資料社, p. 17
8. 金子書房 ; 敎育研究事典, p. 367
9. 戶田正志 著 ; 家庭經濟學, 酒井書店刊, p. 126
10. 金英玉, 李仁喜 共編 ; 家政經濟學, 家庭管理學, 修學社, p. 68
11. 大邱市 初等敎育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 장학사 및 국민학교 교사 몇 名의 평가에 따름.

二. 調查家口의 性格

1. 家口의 屬性(attributes)

A. 父母의 年齡

[表 1] 父母의 年齡 ()는 %

父母別 年齡	아버지	어머니
~29		6(1.6)
30~39	109(29.8)	224(59.4)
40~49	186(50.8)	122(32.4)
50~59	60(16.4)	19(5.0)
60~	11(3.0)	6(1.6)
計	366(100.0)	377(100.0)

父母의 年令은 20代에서 60代 以上에 걸쳐 있는데 表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父는 40代가 제일 많고(50.8%), 母는 30代에 많다(59.4%).

그런데 본 調查家口에 있어서는 父失 家口가 12, 母失 家口가 1家口로서 缺損家族(broken family)은 總家口數의 3.3%이다.

B. 父母의 學歷

父母의 學歷(表 2)은 中等敎育(中學校, 高等學校)의 경우, 父와 母가 비슷한 比率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父의 경우는 專門·大學의 學歷履修가 많고(37.1%), 母는 이와 대조적으로 국민학교履修가 많다(38.1%). 따라서 父母가 다같이 상당히 높은 敎育을 받았지만, 父의 敎育程度가 母의 敎育程度보다 월등 높다.

[表 2] 父母의 學歷 ()는 %

學歷	父母別	
	아버지	어머니
無 學	5(1.3)	12(3.1)
國民 學校	36(9.7)	146(38.1)
中 學 校	92(24.8)	98(25.6)
高等 學校	89(23.9)	100(26.1)
專門·大學校	138(37.1)	25(6.5)
其 以 上	12(3.2)	1(0.3)
不 明		1(0.3)
計	372(100.0)	383(100.0)

C. 家口別 家族員數

家族員數는 家口別로 보아서 6,7人을 中心으로

註: 中退, 卒業 포함

家庭經濟에 있어서의 教育費支出

[表 3] 家口別 家族人員數 5人~8人에 가장 많이 分布되어 있다(表 3). 그 비율을 보면 5人

人員數	實 數	%
2	2	0.5
3	10	2.6
4	20	5.2
5	71	18.5
6	82	21.4
7	84	21.9
8	58	15.1
9	27	7.0
10	21	5.5
11	4	1.0
12	5	1.3
計	384	100.0

에 있어서 18.5%, 6人이 21.4%, 7人이 21.9%, 8人이 15.1%로
서 전체의 77%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家口別 平均 家族員數는 6.6人으로 이를 1966년도 大邱市의 평
균 家族員數 5.3人(註 1)과 비교하면 약 1.3人이 더 많다. 이러
한 차는 아마도 本調査에 있어서 教育비 지출이 없는 家口는 제
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昨年度 金鍾淇教授의 大邱市 家計調査
에 있어서는 평균 6.2人이다(註 2).

D. 生活費의 負擔者

生活費의 負擔者는(表 4) 家口 (表 4) 生活費의 負擔者(家族別)

별로 볼 때 父의 경우가 전체의

負 擔 者	實 數	%
아 버 지	298	77.6
父 와 母	49	12.7
어 머 니	16	4.2
家族中 1人	1	0.3
家族中 2人	13	3.4
家族中 3人	7	1.8
計	384	100.0

註: 平均家族員數 6.6人

77.6%, 父와 母가 공동으로 부담
하는 경우가 12.7%, 그 다음은 母 혼자서 부담하는 것이
4.2%이고, 그 外의 경우가 약간 있다. 따라서 家口別 생활
비의 負擔者는 父 또는 母의 부담이 壓倒的인 多數를 차지
하여 그 비율은 약 95%이다.

2. 家口主의 職業構成

이상에서 本調査 家口의 屬性을 몇 가지 보아왔는데 이 家口들은 사회적 活動의 單位로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는 가족의 대표가 되는 家口主의 職業
으로 集約될 수 있을 것이다. 家口主의 직업 분류에는 職業階層 分類과 產業分類에 의한 두
가지가 있는데 表 5는 대체로 職業分類에 의한 것이다.

이 表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家口主의 직업도 雜多한 것이지만 이를 종합하면 5個의 職
業階層으로 類型化할 수 있겠다. 즉 1階層은 經營職 및 管理職을 포함하고, 2階層은 醫師,
大學教授, 判檢事, 牧師와 같은 專門職(professional occupation)이며, 3階層은 敎師, 公務
員, 會社員과 같은 일반 奉給者들(salary man), 4階層은 商店主들이다. 5階層에 있어서는
농업, 노동자, 기타, 무직 등과 같이 하나의 階層으로 묶기에는 性格上 곤란하지만 職業分
類의 數가 얼마 안되어서 합쳤다.

따라서 이 表의 職業階層構成으로 보아 3階層, 4階層을 主軸으로 하는 中間階級과 그 이
상의 계층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本調査 家口는 階級的 성격에 있어서는 大
邱市의 中間階級 이상의 家口가 주로 抽出되었으며 本調査가 처음 의도한 바와는 달리 大
邱市 家口中에서 勞働者群으로 구성되는 하층계급이 그 標本抽出에서 排除되었던 것이다.

〔表 5〕 家 口 主 의 職 業

()는 %

職業階層	職 業 分 類	父	母	小 計	計
1 階 層	經 營 主 · 管 理 職	54	1	54(14.1)	54(14.1)
	醫 師	20		21(5.5)	
2 階 層	大 學 教 授, 判 檢 事, 牧 師	17		17(4.4)	38(9.9)
	教 師	53		53(13.8)	
3 階 層	公 務 員	49	1	50(13.0)	149(38.8)
	會 社 員	45	1	46(12.0)	
4 階 層	商 店 主	118	6	124(32.2)	124(32.3)
	農 業 者	5	2	7(1.8)	
5 階 層	勞 働 者	4	1	5(1.3)	19(4.9)
	其 他	1		1(0.3)	
計	無 職	6		6(1.6)	384(100.0)
		372(96.8)	12(3.2)	384(100.0)	

이와 같이 sampling에 있어서 偏向을 가져온 이유는 端的으로 配票調査法을 사용했다는 데 있는 것으로 안다. 즉 調査票를 應答者 자신이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① 教育程度가 낮은 사람은 調査票를 기재할 수 없었고 ②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해서 集計對象에서 脫落해 버렸던 것이며 이들은 주로 下層의 社會階層에 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以後의 分析에 있어서는 主로 大邱市 中間階級 以上の 家口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야 하겠다.

<註>

1. 大邱市 ; 統計年報, 1966. 6. p. 16
2. 金鑪淇 ; 大邱市民 家計調査 結果報告, 1966. 6. p. 8

三. 家口의 經濟狀態

1. 收入과 支出

A. 收入과 支出額

첫째로 收入額에 대해서는 表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 金額階層, 즉 5,000원 未滿에서부터 ⑩ 金額階層인 50萬원 以上の 相當한 幅差를 갖는 收入分布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는 10,000원 이상에서 25,000원 未滿의 ③ 金額階層이며 그 비율은 전체의 약 반에 가까운 43.5%를 나타낸다. 그 다음이 25,000원 이상에서 50,000원 未滿의 29.0%이다. 따라서 이 兩收入階層이 全家口의 72.5%, 즉 약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調査家口의 平均收入額은 29,859원이다.

大邱大學 金鑪淇教授의 1966년도 大邱市 家計조사에서의 수입액 21,953원에 비하여 7,906

家庭經濟에 있어서의 教育費支出

[表 6] 收入額과 支出額

金額 階層	收 入		支 出	
	%	累積%	%	累積%
① ~5,000원	0.3	0.3	0.8	0.8
② 5,000~	4.3	4.6	5.5	6.3
③ 10,000~	43.5	48.1	48.2	54.5
④ 25,000~	29.0	77.1	33.2	87.7
⑤ 50,000~	11.1	88.2	7.6	95.3
⑥ 75,000~	2.4	90.6	1.6	96.9
⑦ 100,000~	6.5	97.1	2.1	99.0
⑧ 200,000~	1.3	98.4	0.7	99.7
⑨ 300,000~	1.2	99.6		
⑩ 400,000~				
⑪ 500,000~	0.4	100.0	0.3	100.0
家口實數	371		383	

원이 더 많다(註 1).

이와 같은 수입의 분포는 中流階層以上의 大邱市 家口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높은 所得水準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금액은 상당한 信賴性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예컨대 父母의 직업을 묻는 設問에서 職位까지 기입케 하는 방법을 취했으므로 一般教師나 公務員인 경우 대체 그 俸給額을 예상할 수 있는데 비해 훨씬 그 金額을 超過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應答者들이 經濟的 事實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재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 支出額에 있어서는 역시 가장 많은 비율이 10,000원 이상에서 25,000원 未滿이고 (48.2%), 그 다음이 25,000원 이상에서 50,000원 未滿의 33.2%이다. 이 兩金額階層을 합하면 전체의 81.4%가 된다. 平均支出額은 28,110원이다. 本 調査對象 家口의 消費性向(註 2)은 상당히 높아서 94.1%가 된다. 金鑰洪教授의 경우는 90.7%, 日本의 경우는 84.3%이다(註 3).

이와 같은 收入額과 支出額을 同一金額 階層別로 비교해 보면 ⑤金額階層以下의 낮은 金額階層分佈에 있어서 收入의 것보다 支出에 더 많은 家口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注目된다. 即, ④金額階層에서 收入家口보다 支出家口가 4.2%, ③金額階層에서 4.7%, ②階層 ①階層에서 각각 1.2%, 0.5%가 더 많아 累積 %로서는 收入의 77.1%에 비해서 10.6%가 더 많은 87.7%의 家口가 이 4個의 金額階層에 모여 있다.

이러한 현상은 ⑤金額階層以上의 낮은 所得階層에서는 收入보다 支出이 초과하는 엔벨런스 的 家口가 상당히 內包되어 있다는 것을 示唆해 주고 있다.

이 收入과 支出의 엔벨런스를 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추구한 것이 表 7이다.

즉 縱의 收入金額 계층과 橫의 不足金額을 크로스(cross) 시킨 것, 換言하면 家口別 수입액에 따른 부족액을 밝혀 본 것이다.

먼저 이 表에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無應答 13家口를 제외한 371家口의 26%에 해당되는 97家口가 收入關係에 있어서 支出이 收入보다 초과하는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가운데서도 엔벨런스가 막심한 家口는 收入額으로 볼 때, 收入額別 總家口(B)로 해당되는 不足家口(A)를 除한 A/B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10,000원 未滿의 收入家口(58.8%)와 10,000원 以上에서 25,000원 未滿의 收入을 올리는 家口(41.9%)에 집중되었고, 그 이상의 收入額을 올리는 家口일수록 不足家口數의 비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表 7] 收入額과 不足額 (家口別)

收入	不足								計 (A)	總家口 (B)	A/B
	1,000	2,500	5,000	7,500	10,000	25,000	50,000	75,000			
~10,000원	1	2	4	1	1	1			10(10.3)	17	58.8%
10,000~	7	16	16	10	6	9	3		67(69.1)	160	41.9
25,000~	2	6		3	1	4			16(16.5)	110	14.5
50,000~						1			1(1.0)	50	2.0
100,000~							1		2(2.0)	34	8.8
計	10	24	20	14	8	15	4		97(100.0)	371	26.1
	(10.3)	(24.7)	(20.6)	(14.4)	(8.2)	(15.6)	(4.1)		(2.1)		

不足額의 분포는 1,000원 未滿에서 75,000원 이상의 상당히 넓은 金額差에 걸쳐 있지만 不足家口中 65.6%에 해당되는 54家口가 매월 5,000원 未滿의 부족액을 내고 있다.

2. 家計費와 教育費

[表 8] 家計費目別支出 (大邱市)

調査者 記號	調査		
	本調査 (A)	金鏞淇氏 査 (B)	經濟企劃院 査 (C)
食料品費	45.0%	45.1%	47.5%
住居費	10.9	6.1	16.2
光熱費	5.5	4.9	6.5
被服費	12.7	10.7	10.2
教育費	18.3	7.8	3.9
雜費	7.6	20.0	13.7
非消費支出	1.2	6.3	2.0
計	100.0	100.0	100.0

表 8은 가계비 지출을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教育費, 雜費, 非消費支出 등으로 구분해서 조사 가구의 평균 지출을 그 費目別로 %化하여 他的 調査된 자료와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A는 本調査에서 產出한 것이고 B는 金鏞淇教授의 것이고 C는 1967年度 韓國統計年鑑의 大邱市 평균을 각각 筆者가 百分比化한 것이다.

먼저 A의 경우에 있어서, 調査家口 總數의 平均家計支出 項目別 比率, 즉, 家計支出 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그 支出費目別로는 食料品費가 45.0%, 住居費가 10.9%, 光熱費가 5.5%, 被服費가 12.7%, 教育費가 18.3%, 雜費가 7.6%, 그리고 非消費支出이 1.2%이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食料品비로서 45.0%, 그 다음이 教育비인 18.3%이다.

家計費目別 %의 산출에서는 教育비가 별도로 計上이 되지 않고 雜費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教育비의 내용도 經濟企劃院처럼 단순히 授業料(school fee)만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筆者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教育비를 授業料만으로 보지 않고 教育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隨伴되는 諸費用의 總合이라야 하며 英語로서는 educational expenditure라는 개념이 타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教育비의 세 가지의 비율의 비교는 基準이 다른 만큼 별로 意義가 없겠으나 他費目的의 비교는 거의 공통적인 기준인데도 그 數値에 있어서 中間階級以上の 家口가 調査對象이 된 本調査의 것과 大邱市の 平均인 B와 C의 調査가 상당히 차이가 보여서 實際家計費 支出算出의 正確성을 기하는데 研

究者間的 상당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영든 本調査에서 教育費(educational expenditure)가 평균 18.3%가 된다는 것은 中間階級以上の 가정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不可避的인 食料品費를 제외한 55% 支出費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비에 지출되고 있다고 하면 그 負擔度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經濟生活狀態

일반적으로 經濟的인 생활 수준의 指標로서 이 係數가 많이 이용된다. 그 산출에 있어서 總支出中 非消費支出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액에 대한 食料品費의 비율이 곧 英겔係數(Engel's coefficient)로 되는 것이다. 이 조사의 경우 英겔係數의 家口別分布를 보여 주는

[表 9] 家口の 英겔係數

英겔係數	家口實數	%
90~%		
80~	2	0.5
70~	9	2.4
60~	31	8.3
50~	103	27.5
40~	103	27.5
30~	81	21.8
20~	44	9.0
10~	10	2.7
~10	1	0.3
計	374	100.0

것이 表 9인데 여기에서는 조사 가구중 係數를 산출할 수 없는 10가구를 제외한 374가구의 係數分布를 보여 주고 있다. 係數 90%를 차지하는 가구는 없으며 10% 未滿에서부터 80%線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가장 係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40%線과 50%線으로 全家口의 55%에 해당된다. 이를 中間線으로 본다면 이들 調査家口는 40%와 50%를 중심으로 해서 係數가 낮은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평균 英겔係數는 46%로서 이는(註 4) 昨年度 韓國統計年鑑의 48.5%와 金鏞淇教授의 大邱市 가구 중 305가구를 sampling해서 산출한 係數 48%와(註 5) 비교해 볼 때 상당한 信賴性이 인정된다. 1963年度 日本 都市家口의 경우 평균 英겔係數는 36.4%이다(註 6).

<註>

1. 金鏞淇; 大邱市民家計調査結果報告; 大邱市, 1966. 6. pp.8~9
2. 上掲書 p. 9
3. 磯村英一編; 都市問題辭典; 鹿島研究所出版會, 1965. p.387
4.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67
5. 金鏞淇; 上掲書, p. 9
6. 磯村英一編; 上掲書, p. 387

四. 家口の 教育費支出

本 調査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教育費支出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經濟的 追求에 앞서 家口別로 교육비 지출의 子女數와 各級學校의 제학 실태를 밝혀 보기로 한다.

1. 教育費支出과 子女數

A. 教育費 支出 子女數

(表 10) 教育費支出 子女數(家口別)

子女數	家口實數	%
1	40	10.7
2	82	21.4
3	113	29.1
4	96	25.0
5	37	9.6
6	15	3.9
7	1	0.3
計	384	100.0

表 10에서와 같이 교육비 지출 子女數의 분포는 1人에서 7人까지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3人 子女數를 중심으로 하여 2人에서부터 4人까지에 가장 많은 비율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75.5%에 해당되는 것이다.

B. 各級學校의 在學 子女數

이와 같은 子女數를 그들이 다니는 學校級에 따라서 구분하여 아들, 딸 別로 보면 表 1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總子女數 1,206名 가운데서 아들 : 598名, 딸 : 608名으로 女子의 比가 약간

높다. 이를 學校級으로 비교해 보면, 國民學校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中學校, 高等學校에서는 딸의 在學生數가 아들보다, 大學의 경우는 아들이 딸보다 약간 더 많다. 물론 家口 別로 보아서 한 家口에 딸만 있

다든가 아들만 있다든가, 大學 生만 있다든가 하는 多樣性이 있기는 하지만, 平均적으로 보았을 때 1 家口當 平均 자녀의 總數는 3.1名이고, 上級學校가 될수록 減少하고 있다.

(表 11) 各級學校의 在學 子女數

()는 %

各級學校	性 別		計	總家口數에 對한 比
	아	들		
其 他	21(67.7)	10(32.3)	31(100.0)	0.1
大 學 校	52(54.7)	43(45.3)	95(100.0)	0.2
高 等 學 校	66(48.2)	71(51.8)	137(100.0)	0.4
中 學 校	94(46.1)	110(53.9)	204(100.0)	0.5
國 民 學 校	365(49.4)	374(50.6)	739(100.0)	1.9
計	598(49.6)	681(50.4)	1206(100.0)	3.1

즉 國民學校에 다니는 자녀

※ 其他는 유치원, 강습소, 대학원

는 1家口當 약 2명(1.9명)이고 中學校는 0.5명, 高等學校 0.4명, 大學은 0.2명, 그리고 講習所, 幼稚園, 大學院에 다니는 자녀를 포함시킨 기타가 0.1명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平均적으로 每家口當 아들 1명, 딸 1명이 國民學校에 다니고 10家口 가운데서 5家口가 아들 또는 딸 한 사람을 中學校에, 넷을 高等學校에, 둘을 大學校에 하나를 其他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2. 教育費支出의 經濟的事實

A. 各級學校의 教育費

表 12는 各級學校別, 즉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기타의 남녀별 평균 교육비이다. 여기에서는 성격이 막연한 기타만 제외하면 學校級이 높을수록 교육비가 많이 들고 있다. 즉 大學의 경우는 8,000원臺이고, 高等學校, 中學校는 각 4,000원, 3,400원臺로

家庭經濟에 있어서의 教育費支出

[表 12] 各級學校의 教育費

各級學校	1人當 平均 教育費	
	아 들	딸
國民學校	1,497	1,641
中學校	3,592	4,169
高等學校	4,335	4,996
大學校	8,257	8,351
其 他	4,226	2,138
計	21,907	21,295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게 들고 있다. 義務教育의 경우도 1,500원 내외의 놀랄 만큼 높은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 大邱市の 平均所得을 올리고 있는 家口에서 만일 國民, 中學, 高等, 大學校, 기타에 아들, 한 명씩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면, 計란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每月 21,907원의 교육비가 지출되는 셈이며 本調査家口의 平均收入金額인 29,859원의 73.3%를 차지하는 무거운 부담이 된다.

그리고 기타만 제외하면 어느 級의 學校라 하더라도 여자의 경우가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이 더욱 顯著한 것이 中學, 高等學校이다.

B. 家口別 教育費의 分布

以上에서와 같은 자녀의 在學狀態와 교육비 지출의 子女數에 關聯해서 家口에 있어서 여러가지 점으로 차이가 있으나 平均的으로 매월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 表 13이다.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최하 1,000원 未滿에서부터 최고 50,000원 이상에 걸쳐 있어서 그 最少額과 最高額의 幅差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액의 분포는 1,000원 이상에서 7,500원 미만의 線에 總家口의 68.1%에 해당하는 255 家口가 집중하여 本調査 家口의 일반적 또는 표준적인 지출의 pattern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傾向과는 별도로 10,000원 ~25,000원臺를 지출하는 상당한 家口(14.9%)가 몰려 있음이 눈에 띄어서 밝혀 보았더니 이 家口들은 주로 低學級의 자녀를 가지더라도 所得水準이 매우 높은 高額收入階層과 그렇지 않더라도 주로 上級學校(특히 大學校)에 자녀를 보내는 家口로 構成되어 있었다. 즉 전자의 경우는 과도한 교육열에서 오는 支出形態이고 후자는 자녀의 上級學校 在學이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表 13] 家口別教育費의 分布

家口 教育費	實 數	%
~1,000 원	29	7.7
1,000~	105	28.1
2,500~	77	20.5
5,000~	73	19.5
75,000~	21	5.6
10,000~	56	14.9
25,000~	11	2.9
50,000~	3	0.8
計	375	100.0

C. 子女數와 教育費

이렇듯 本調査 家口는 그 在學子女數에 있어서 다르고 또 자녀가 다니는 各級學校의 교육비가 틀릴 뿐만 아니라 家口別 教育비 지출액도 多樣的이었는데 表 14는 이러한 變異性을 捨象하고 家口別로 학교에 다니는 子女數와 그 家口의 家計費에서 점하는 교육비의 %를 相關시킨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實數의 分布에서도 짐작이 되겠고 平均 % 欄에서 더욱 明白해지는 바이지만 어느 級의 학교에 다니는가에 관계 없이 子女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家計費中에서 교

교육비의 %가 上昇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예컨대 1人的 자녀를 가지는 경우는 교육비의 비율이 8.6%인데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비율이 계속 上昇하여 5人的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家口는 平均的으로 29.3%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多子女가 家庭經濟의 均衡維持에 하나의 disturbing factor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6人 以上の 경우는 遞減의 原則適用이라고 할까, 5人的 子女의 경우보다 교육비 %가 오히려 減少의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그 數가 적어서 명확한 傾向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表 14〕 子女數와 教育費

()는 %

子女數	教育費 (%)	~10	10~	20~	30~	40~	50~	60~	計	平均
1		27	10	2					39	8.6
2		39	26	9	1		2		77	11.3
3		15	56	30	4	2		1	108	18.1
4		9	41	25	13	4	1	1	94	21.7
5		2	7	10	11	5	2		37	29.3
6		2	1	5	7				15	26.3
7				1					1	25.0
計		94 (25.3)	141 (38.1)	82 (22.1)	36 (9.7)	11 (3.0)	5 (1.3)	2 (0.5)	371 (100.0)	18.3

3. 各級學校의 教育費支出의 패턴

表 11은 各級學校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의 pattern을 學校級別로 비교한 것이다. 이 表의 교육비 細目은 上記의 16가지의 교육비 細目이 網羅된 것이 아니고 10개의 細目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10가지로 줄인 이유는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의 性格差라든가 男·

〔表 15〕 各級學校의 教育費支出 Pattern의 比較

各級學校 教育費細目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支出 子女數	① 對 於 %	支出 子女數	① 對 於 %	支出 子女數	① 對 於 %	支出 子女數	① 對 於 %
公納金·期成會費	607	82.1	192	94.1	132	96.4	87	91.6
教科書代金	665	90.0	191	93.1	121	88.3	82	86.3
校 服 費	311	42.1	176	86.3	123	89.8	70	73.7
參 考 書 費	481	65.0	165	80.9	101	73.7	59	62.1
通 學 費	89	12.0	99	48.5	70	52.6	67	70.5
下宿, 寄宿, 自炊	2	0.3	3	1.5	9	6.6	28	29.5
學 用 品 費	486	65.8	157	77.0	100	73.0	49	51.6
一般 教養 圖書費	294	39.8	92	45.1	60	43.7	54	56.8
家庭教師·講習費	132	17.9	53	26.0	38	27.7	13	13.7
特 技 指 導 費	99	13.4	19	9.3	14	10.2	8	8.5
各級學校 總子女數 ①	739		204		137		95	

家庭經濟에 있어서의 教育費支出

女 性別에 따른 차이, 또는 학년에 따른 특수성, 예컨대 卒業費, 修學旅行費 등과 같은 支出費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경우나 공통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적출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항목의 羅列順序는 貧富나 學校差, 性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출해야 할 공통의 항목을 上部에 놓고 下部分은 家口의 경제적 사정, 교육열에 따라 選擇的인 항목을 놓고 그 중간적인 성격을 띤 항목을 中位에 둔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各級學校別로 보아서 通學費, 下宿, 寄宿, 自炊費의 현저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國民學校가 中學 이상의 上級學校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즉 義務教育이 실시되고 또 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어야 할 國民學校에 있어서 比率上的 多少의 차이는 있으나 지출 패턴에 있어서 上級學校와 유사한 것이며 따라서 학부모는 國民學校에서부터 選擇性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제적인 지출이 강요당하고 있거나 또는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명백히 하고 있다. 調査票 작성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講習과 家庭教師를 함께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으나, 家庭教師費는 國民學校가 他級學校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고 講習所費는 中學校 以上の 各級學校에서 현저할 것으로 추측된다. piano나 violin, 美術 등 特技指導費 등 지출에 있어서는 國民學校의 경우가 他級學校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이 表가 보여 준다. 이러한 점에서 義務教育을 指向하는 國民學校 教育에 있어서의 비정상적인 一端을 엿볼 수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4. 職業階層과 教育費

이상에서 여러 가지 側面에 걸쳐서 교육비 지출을 追求해 왔는데 이와 같은 교육비 지출을 앞서 설명한 바가 있는 職業階層別로 볼 때 어느 職業階層이 相對的으로 보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가를 判別하는 것이 表 16이다.

〔表 16〕 職業階層과 教育費

職業階層	要因 記號	支出子女 數(平均)	教育費 (平均)	영 계 수 (平均)	B/A/ 100-C
		A	B	C	D
1階層		3.6	19.6	42.7	0.094
2階層		3.3	21.8	41.3	0.113
3階層		3.0	16.7	47.5	0.106
4階層		3.1	18.0	44.8	0.105
5階層		2.6	23.3	48.3	0.174

이 表에 나타나 있지만, 各 職業階層은 $A = \text{平均子女數}$, $B = \text{教育費\%}$, $C = \text{영계수}$ 가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A와 C를 control 하고 B만 비교할 수 있도록 된다면, 同一한 水準에서 各階層의 教育비의 負擔度를 측정할 수 있겠다. 이 원칙에 따라서 A, C를 control하여 B만 비교하도록 數式化한 것이 D의 $B/A/100 - C$

C이다.

이리하여 D欄에서 산출된 各職業階層의 수치는 第1階層에서 0.094, 第2階層은 0.113, 第3階層은 0.106, 그리고 第4階層은 0.105, 第5階層은 0.174인데 이 중에서 높은 수치를 가

지는 階層일수록 교육비 부담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편 이는 이 계층의 부모가 자녀 교육에 보다 열성적이거나 희생적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 큰 차는 아니지만 相對적으로는 係數가 가장 높은 第5職業階層이 부담이나 열성도가 가장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專門職으로 구성되는 第2階層이 그 다음이며 第1職業階層인 經營職 및 管理職의 家口主들이 가장 낮은 教育熱誠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五. 教育費支出과 家口主의 態度

第三節, 第四節에 걸쳐서 家口의 경제 상태 및 교육비 지출의 경제적 사실을 계속 追求해 왔으며, 本調査家口의 성격이 主로 中間階級以上の 社會階層으로 이루어졌는데도 不拘하고 상당한 經濟的인 壓迫 수입과 지출의 不均衡과 과도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제적인 사실을 主로 추구해 보았다.

이러한 家口의 경제적 상태에서 각기 家口主가 社會心理的으로 어떠한 反映을 그들의 태도에서 보여 주고 있는가를 문제삼은 것이 第五節의 論旨가 된다.

1. 家口主의 表層的인 態度

表 17에서는 家口主가 불안한 경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계속 받 아들이려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表 17] 收入이 減少할 경우 줄이고자 하는 家計費目

收入額 支出費目	원	5,000	10,000	25,000	50,000	75,00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計
	5,000	~	~	~	~	~	~	~	~	~	~	
食料品		5	53	22	8		2		1			91
被服		2	24	15	5	1	5		1			53
住居			4	7	2		2					15
光熱			3	1								4
教育		1	8			1						10
保健衛生			1	1								2
交際娛樂		6	39	36	14	4	11	2	2		1	105
貯蓄	1	2	26	27	12	2	4	3				77
計	1	16	158	109	41	8	24	5	4		1	367

즉 이 表는 수입이 減少한다면, 家計費目中 어느 費目を 줄이겠습니까에 대한 家口主의 응답 내용이 그 家口의 수입액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밝혀 본 것이다. 그러나 어느 收入階層의 家口主를 막론하고 家計費目中에서 교육비를 줄이려고 하는 家口가 극히 적으며, 이는 全體家口의 2.7%에 不過한 것이다. 이는 어느 收入階層의 家口主도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대로 계속하려고 하는 熱誠的인 교육열을 전반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2. 家口主의 深層的인 態度

이렇듯 實際的 事實(fact)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리적으로 이를 감수하려고 한다면 경제적 요인과 家口主의 태도에 一貫性이 論理的으로 성립할 것이다.

그런데 本調査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패러독시컬(paradoxical)하다고 생각되었으나 本調査對象 家口主가 전체적으로 深層的인 태도에 있어서 家計均衡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출을 control하는 mechanism이 작용하고 있다는 몇 가지 사실이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의 하나가 表 18인 家口別 Engel係數와 家計費目中的 教育비 %의 相關表이다.

[表 18] Engel 係數와 教育費(家口別)

Engel 係數	教育費 (%)										計	平均	
	90~	80~	70~	60~	50~	40~	30~	20~	10~	~10			
% 90~													
80~											2	2	5.3
70~										1	7	8	6.3
60~								3	15	13	31	8.7	
50~							1	20	51	30	102	14.2	
40~						3	8	28	44	19	102	17.0	
30~					2	5	16	19	23	16	81	22.2	
20~					3	3	8	10	6	4	34	27.6	
10~				2			3	2			10	30.0	
~10										1	1	15.0	
計				2	5	11	36	82	141	94	371	18.3	

이 表를 얼핏 보면, Engel係數가 낮은 家口일수록, 즉 所得生活程度가 높은 家口일수록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어서 平均을 보여 주는 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所得 및 생활 정도가 높은 家口일수록 교육비 부담이 무거운 것 같이 해석이 되기 쉽지만, 이를 逆으로 생각하면, 上流層은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다른 家計費目 지출에 있어서 別影響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경제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ngel係數가 높은 즉, 所得生活程度가 낮은 家口에 있어서는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면, 他的 家計費 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ngel係數가 높은 계층일수록 교육비 지출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本調査家口가 所得 經濟狀態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육비 지출을 control하고 있는 證左의 하나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表 19는 家口主가 표시하는 control 작용의 또 하나의 예이다. 家口主에게 “수입이 증

〔表 19〕 收入이 增加할 경우 늘이고자 하는 家計費用 (家口別)

支出費目	收入額											計
	~원 5,000	5,000 ~	10,000 ~	25,000 ~	50,000 ~	75,000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500,000 ~	
食料品費			19	8	4		2					33
被服費		1	10	4	2		1					18
住居費			11	9	3		2					25
光熱費					1							1
教育費		4	50	27	9	1	1					92
保健衛生費		1	7	6	1		2					17
交際娛樂費			1	3	2		2		1			9
貯蓄費	1	10	61	52	19	7	14	5	3		1	173
計	1	16	159	109	41	8	24	5	4		1	368

가한다면 어느 項目의 지출을 늘이고 싶으냐의 응답 내용과 收入階層을 cross 시켰더니 어느 收入階層을 막론하고 저축을 늘이겠다"고 한 家口主가 가장 많고(173名), 그 다음을 대개 교육비로 들고 있다. (92名) 물론 저축함으로써 子女教育의 실제적인 뒷받침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 兩者는 相互關聯이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되지만, 교육비를 第一義的으로 보지 않고 저축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점은 역시 均衡的인 가정생활의 경제적 영위를 위한, 表 13과는 또 다른 의미의 control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家口主의 control 작용은 비단 上記의 態度表明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各家庭에서 “왜 자녀를 進學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는 設問에 대해서 家口主들은 進學시키지 않은 이유로 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國民學校의 경우는 어느 收入階層에 屬하는 家口主를 막론하고 年齡未達을 들고 있었고, 또 應答內容에서 中學校 이상 진학에 해당되는 不合格을 相當數의 家口主가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제외하였다(表 19).

不進學이 유는 이 表가 보여 주듯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은 子女本人들의 進學不願과 家計支出 부담자인 家口主의 학비 조달 곤란의 두 가지 이유이며, 그 이외 자녀의 신체적인 장애, 진학 불필요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進學不願, 學費調達困難, 進學不必要에서 나타나는 아들·딸의 上級學校 진학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家口主의 태도이다.

〔表 20〕 子女가 進學하지 않는 理由 ()는 %

理由	各級學校		中學校에		高等學校에		大學校에		D·K		小		計
	性別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하	들	
	아들	딸											
進學 不願	2		2	2	7	12					11(40.7)	14(29.8)	25(33.8)
學費調達困難			2	4	4	8	20	1			13(48.2)	26(55.3)	39(52.7)
身體的 障害	1			1	2						3(11.1)	1(2.1)	4(5.4)
進學 不必要								6				6(12.8)	6(8.1)
計	3	2	6	7	17	138	1				27(100.0)	47(100.0)	74(100.0)

첫째로 進學不願은 本人들의 태도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딸의 경우는 大學校에서 그 數가 더 많고, 둘째로, 學費調達困難은 부담자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大學의 경우 특히 딸에 대해서 더욱 困難性을 강조했고, 셋째로 進學不必要에서 大學의 경우 女性만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其外에 上級學校일수록 진학이 억제되는 아들·딸의 數가 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해당되는 자녀의 數가 적은 편이라서 斷言하기는 곤란하지만 上級學校일수록 본인 스스로가, 또는 부모가 주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一種의 control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六. 結 論

이상에서 상당히 많은 統計表를 사용하여 家口의 屬性, 家口의 經濟狀態, 家口의 教育비 지출, 그리고 교육비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家口主의 태도 등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側面에 걸쳐서 社會經濟的인 분석을 하였다.

本 論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要約, 結論지을 수 있다.

① 本 調査 家口의 相當數 특히 中樞收入 階層에서 相當數가 收入支出의 不均衡狀態가 보이며, ② 平均 3.1인의 교육비 지출의 자녀를 갖고 이에 따른 교육비 지출액이 總生計費中 18.3%라는 높은 부담을 지고, ③ 國民學校의 경우만 하더라도 平均 1,500원의 교육비를 매월 지출해야 하며 이것이 上級學校에 갈수록 교육비도 현저하게 上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와 같은 경제적인 支出狀態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家口主의 心理나 態度에 있어서 如前히 教育熱이 過度하다고 判斷할 수 있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家口의 深層的 態度에 있어서는 자녀의 교육을 상당히 중시하고 열성적이기는 하지만 經濟的으로 가정생활의 均衡維持를 위하여 調査家口가 전체적으로 교육비의 지출을 control하는 mechanism 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本 調査는 다음의 점에 있어서 自己反省을 하고 있음을 附言하고자 한다.

첫째, sampling에 있어서 筆者 혼자 하는 일이 되어서 부득이 代表性이 낮은 cluster sampling과 配表調査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精度와 正確性에 대한 信賴度가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며 둘째, 既存資料가 거의 없어서 過去 時點의 것과 現在 時點의 것과 비교하는 縱斷的인 分析(longitudinal analysis)을 못하고 調査票를 사용한 橫斷的인 分析(cross sectional analysis)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적당한 시기에 本 調査資料를 이용하여 縱斷的인 分析을 試圖해 보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1. 金英玉·李仁喜 共編; 家庭經濟學·家庭管理學, 修學社, 1964
2. 經濟企劃院; 經濟白書, 1967.
3. 白賢基; 教育財政, 乙酉文化社, 1963.

4. 李廷煥；新經濟原論，法文社，1963.
5. 成昌煥；經濟原論，博英社，1963.
6. 李萬甲；社會調查方法論，民潮社，1967.
7. 安思明；現代統計學，日新社，1966.
8. 大邱市；大邱市民 家計調查 結果報告，1966.
9. 文教部；文教統計年報，1966.
10. 經濟企劃院；韓國統計年鑑 1966, 1967.
11. 大邱市；統計年報 1966.
12. 經濟企劃院；韓國統計月報，1967. 6.
13. 大韓民國 文教部；文教統計年報，1966.
14. 文化生活 叢鑑；英志文化社，1962.
15. 中央大學校 教育學科編；韓國教育目錄，1960.
16. 韓國年鑑編纂會；韓國年鑑，1967.
17. 共同通信社；世界年鑑，1967.
18. 合同通信社；合同年鑑，1967.
19. 大韓教育聯合會；韓國教育年鑑，1966, 1967.
20. 經濟學大辭典；博英社，1964.
21. 家政；女苑社，1960.
22. Wood, Mildred Wegley; Managing the home, Boston, Houghton Mifflin, 1932.
23. Harvy, J; Elementary Economics, London, Macmillan, 1958.
24. Hayes, H.Gordon; Spending, Saving, & Employment. New York, 1954.
25.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NEA, 1961.
26. Harbison, F. and Myers;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McGraw-Hill, 1964.
27. Schultz, Theodore W; The Economic Value of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28. Kenneth Ducan; The Home Builder's Handbook, D.Van Nostrand Company, Inc. 1959.
29.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ume 56, Number 6, 1964.
30. Clark, Harold F; Cost and Quality in Public Education,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3.
31. 籠山京；家庭の經營と管理，光生館，1959.
32. 橫山光子；家庭經濟學 提要，光生館，1959.
33. 戶田正志；家庭經濟學，酒井書店刊，p. 126.
34. 日本家政學會；家政學雜誌，48號，1961.
35. 日本家政學會；家政學雜誌，50號，1961.
36. 磯村英一編修；都市問題事典，鹿島研究所 出版會，1965.
37. 家庭科事典 第一卷，平凡社. 1954.
38. 教育大事典，1960.
39. 教育研究事典；金子書房，1954.
40. 經營經濟學辭典，普文閣，1959.
41. 家政科辭典，岩崎書店，1952.